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발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 법공양 페이지

# 무한능력 주어졌어도 못믿으니 탈

## 일체 만물만생이 돌이 아니고 내몸속 중생들도 돌이 아니라 생각할 때 영원한 자유 얻어

이렇게 법우님들과 같이 다시 한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음으로부터 행의 작용으로 발전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지구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한번 잘 먹으면 세계를 조절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나라를 좀더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괴로움과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가져 오게 되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빼놓고, 저것 빼놓고 뭐 남는 게 있어서 불법이라고 하겠습니까? 불법은 우리를 살아가는 이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교 아님이 없기 때문에 불교는 그대로 우리들의 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지내는 이 자체가 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교 아님이 없고, 만물만생이 다 불교 아닌 게 없어서 만나면 만나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체 보면 보는 대로 돌이 아니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지만 마음은 이심전심으로 돌이 아니어서 그렇게 같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같이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면 내 집이 빈 집이 돼서 에너지를 뱉긴다고도 볼 수 있지요. 항상 여러분은 믿고 사는 분들이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집이 비었으면 에너지를 뱉기 때문에 내 몸이 쉬 망가지는 반면에 가난해지고 마음이 뒷따라질 못하니까 뿌리가 성장할 못해서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죠.

불교라는 이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 하나하나 작용하는 것이 법이요, 불은 영원한 불성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그 근본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생각을 해야 사람이지만 생각이 무슨 사람입니까, 에너지 자체가 들고, 나고, 활용하듯 우주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수많은 일체 만물만생의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육심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두 곁에 모아서 한마음이라는 그릇도 없는 데다 다 넣어버렸으니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 에너지를 다 넣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생각을 내면 법바퀴거든요. 생각을 내면 생각을 해내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몸이 해져서 망가지면 벗어버리고 다시 새옷을 입듯이 별성도 마찬가지로 그 생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벗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불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 물, 바람, 흙 등의 원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없고 다시 생선 돼 옷이 다시 만들어져 나오는 거지요. 용광로에 헌신을 넣으면 다시 생산돼서 나오듯이 말입니다.

금도 닳아진 조각리들을 다시 녹여서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지만 금은 그대로 금이듯이 우리 인간도 옷은 갈아입지만 불성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불바퀴로 하나 되지만, 이 도리를 모르면 그 자리를 뛰어들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 물질적인 의식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물질적인 나가 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다스리지 못하고 뒤지 못한 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줄 알고 한발짝도 떼놓을 수 없는 겁니다. 넘어설 수가 없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몸 속에 있는 인과와 악업, 선업이 꼭 갈려서 자기를 립자처럼 쫓아다니기 때문에 한발짝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이 마음 자체를 비워라, 비워라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활 속에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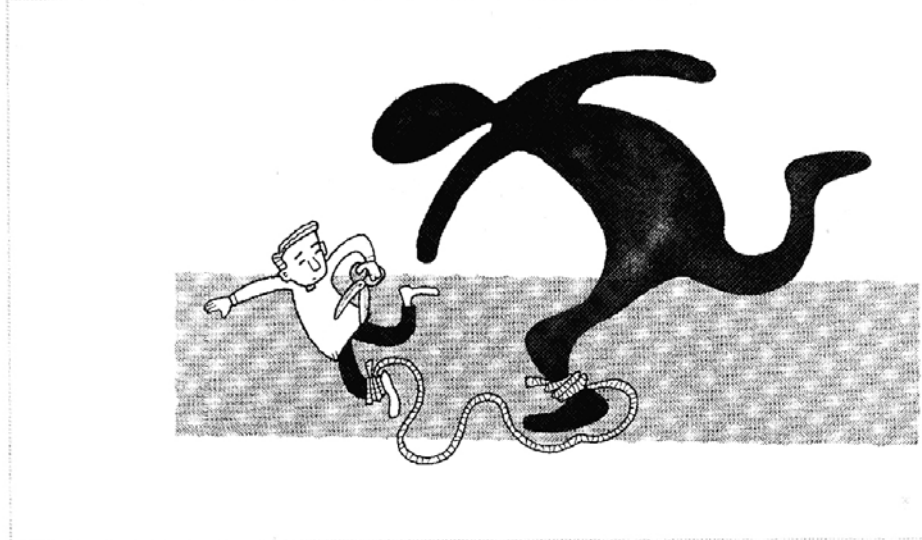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물질을 나로 알면 죽어서도 업식 꼬달려 한마음에 모두 믿고 맡길 때 몽땅 벗어나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작용에 있지 않습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못한다면 죽을 것이고, 내쉬고 들이쉬지 못한다면 죽을 것입니다. 또 부처가 어디 있느냐? 생명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면 들고 내는 작용 가운데 있는데, 들고 내는 그 작용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라고 할 때는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이것이 발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선지식들도 그런 말씀을 했지요. '내가 들어가는 게 옳으나, 나가는 게 옳으나, 들이는 게 옳으나, 내는 게 옳으나'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그 관습이 남아서 고생을 해서 내 집을 장만해 놓았다고 하고, 내 가정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살던 그 습관이 그대로 떠나지 못하는 것이며 또 한가지는 몸은 갔어도 마음은 그대로 있으니 몸뚱이를 가지고 참성(참견)을 해도 귀찮아 죽

는데 이걸 보아도 않는 데서 참성을 하고 돌아다니니 살아있는 자식들에게 못할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이 생의 자진에 자기를 귀찮게 구는 겁니다. 자진 자지고, 그건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착을 두고 있으니 죽어서도 그 관습에 의해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집안 모든 재산, 가정의 모든 작은 때었는데 하화중생의 이 도리를 몰라요. 자기 속의 중생들을 제도 못 했어요. 내 몸뚱이 속에 인과로 생긴 악업, 선업을 녹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나아서 갈려고 해도 이게 그림자처럼 헤아릴 수 없이 나타나서 앞을 막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 도리를 살아서 물랐기 때문에 죽어서 그것들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죠.

몸을 봐도 물으면 어쩌나 하고 가질 못하는데 천차만별로 벌어져 있으니 인연을 가진 것은 머리 풀어 산발하고 귀신처럼 덤비고, 눈 없는 게 들이 덤비고, 팔 없는 게 들이 덤비며 온통 과거에 살

면서 자기가 행동한 대로 인연이 되어 가지고 내 몸 속에 다 있으니 이 모습은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지지만 그 인연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그것은 아무데 가도 쫓아다니기 때문에 붙잡히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딜 가겠습니까. 그걸 훌훌 벗어버려야 자유로울 텐데, 배어가지고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데 산을 넘어간들 안 쫓아가겠습니까. 물을 건너간들 안 쫓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시 생선이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야 무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을텐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정보국에서 정보원들이 정보국장으로부터 쪽 내려오면서 우릴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로 아예 입력이 되어 쫓아다니기 때문에 항상 통화가 되고 비치니 꼼짝할 수가 없지요. 뱃생을 돌아가도 그것은 꼭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오는 대로 되맡겨 놓으리라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체 만물을 다 작용하니깐 '난 심부름만 했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한 게 아니니 주인이 알아서 해결해'하고 거기다 맡겨놔야 그것이 몽땅 벗어지는데 이걸 맨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해!' 그러니 과거에 짊어져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도 죽었는데 또 미래에 나올 것을 연방 입력을 해놓고 있으니 그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것이 몽땅 지워지니 정보국에서 컴퓨터에 넣어봐도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훌훌 벗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도리를 안다면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루하루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듣고, 가고, 오고, 그러는 게 하나도 고정됨이 없이 공해버렸으니 그것이 누적이 되지 않고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듯이 그렇게 일단 말입니다. 이게 하찮은 말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현실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현실에 나를 완전히 아는 데서 세상을 모두 감지하고, 조절하고, 돌아가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다른 말 아무리 해봤자 소용 없어요. 그건 이론에 불과해서 직접적인 실천을 하지 못하는 데는 목이 말라서 죽는다 하더라도 물 한모금 마실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몸이 망가지도 에너지를 넣을 수 없고, 기를 넣을 수가 없으니 하여튼 '한마음 속에 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시자가 주인의 실부름을 건강하게 잘할 거 아닌가' 하고 한 생각만 해도 에너지는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기가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그 병이 없어지는 것을... 왜냐하면, 내가 나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면 한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고 어디 먼 데로 도망을 가려고 해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모습을 아무렇게나 가지고 나를 수밖에는. 그러나 모든 것을 들고 내는 작용을 거기서 한다는 걸 믿고 맡겨야 벗어진다 말입니다. 또 벗어졌어도 나라는 게 남고 관습이 그냥 남아 있다면 강을 건너려해도 물이 깊어서 건널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물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악간의 심부름단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98

# 만(萬)사람이 모여도 본존불은 하나이다.

한마음은 시공을 초월한다. 한마음은 온 만물의 시작 이전부터 있었고 만물의 끝날 이후에도 있다. 한마음에는 어제·오늘이 따로 없고 크고 작음이 따로 있지 않다. 모든 물체가 바다에 이르러 하나가 되듯이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다 한마음에 포섭된다. 한마음은 바로 만물이 비롯된 근원이요 돌아갈 고향이다.

한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부처도, 관세음보살도 한마음 안에 살아 계시며, 지장 보살의 대원력도 한마음 안에 함께 한다.

한마음 안에는 일체 제불이 존재한다. 한마음 안에는 삼라 대천 세계의 진실이란 진실은 다 모여 있다. 한마음 안에는 불보살들의 모든 원력이 다 깃들여 있다. 그러니 그러한 한마음이 무엇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태양 빛은 온 누리를 다 비추고도 부족함이 없다. 한마음의 빛도 그러하다. 삼계를 다 비추고도 부족함이 없다.

한마음은 우주 전체의 힘이며 공덕이다. 마음이 진실로 텅 비어 유무와 호오의 양면을 떠난 중도에서 한마음의 힘은 드러나게 된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의 마음은 하나이다. 모든 생명들끼리는 사실 너와 내가 없다. 본래로 생명은 하나이다. 본래 생명은 부처이다. 그러므로 본래 생명의 마음을 일컬어 한마음이라고 한다. 생명체들이 제각기 육신을 갖고는 있으나 본래 돌이 아닌 것이다.

만 사람이 모여도 본존불은 하나이다. 그것은 체가 없기 때문이다. 각각에 다 본존불이 있어 자기의 본존을 마음의 주인이라 한다면 각각의 마음의 주인은 다 한마음인 것이다. 한마음은 어느 한편이 아니다. 나누고 나누는 데에서 한마음을 구하지 말라.

우주 전체가 생명의 근본 마음, 인간의 근본 마음에 직결되어 있고 세상살이 돌아가는 이 자체가 내 근본에 가설되어 있다.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그냥 하나로 통해 있다는 말이

다. 벽도 없고 붓장도 없으니 일체 제불의 마음이 곧 내 한마음이고, 일체 제불의 법이 곧 내 한마음의 법이며 생활인 것이다. 이 전구 저 전구에 들어오는 전기가 다 똑같듯이 만물은 다 한마음에 하나로 가설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 모두가 부처요, 보살이다. 우리 모두의 한마음이 부처요 보살이다. 무 하나로 요리를 할 때 국을 끓일 수도 있고 김치를 담글 수도 있고 갖가지 요리를 할 수 있으나 김치를 담근 무, 국을 끓인 무가 본래의 무를 떠난 게 아니듯이 삼계의 모든 유위법은 그 본원이 한마음인 것이다.

한마음에서 비롯된 전체적인 우주의 섭리, 연관성이 바로 우리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 근본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전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면 그 속에 누구인들 없었으며 무엇인들 없었는가. 제불보살도 다 그 자리에서 나타난 화현이다.

모든 부처와 중생은 한마음이다. 한마음기에 부처와 중생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한마음으로 돌아가면 부처가 스스로 나타나기에 중생이 곧 부처인 것이다.

발전소에서 내 집 전등에 이르도록 전선을 가설해 놓고서 스위치를 올리자 불이 들어오듯이 나의 마음은 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 그 근본이 다르지 않으니 나의 근본이 곧 만법의 근본이라, 이롭게 주인공이라 한다. 그러나 주인공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했을 때 벌써 근본 자리에서 알고 있으니 그래서 법은 부처요, 자성분이요, 참 보배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근본의 주인공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영원히 돌아가는 자가 발전소와 같아서 항상 앞으로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켜졌다, 꺼졌다 하는 말조차 불지를 않는다.

법안: 주인공